

칼다 기자의 추억

프란츠 카프카 지음

카프카적 사유와 동행

“그의 작품에 압도당하지 않을 독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평이다. 짧고 불우한 삶을 살았던 카프카는 마흔 한 살의 나이로 죽는 날까지 독신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세속적인 영화를 누린 적이 없지만 당대 작가나 이후의 수많은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카프카의 작품 가운데 개성적이며 울림이 있는 아홉 편의 작품을 묶은 ‘칼다 기자의 추억’은 기지와 통찰, 역설과 풍자로 가득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카프카의 독특한 개성만큼이나 각각의 작품은 다채로운 환상과 상상의 세계를 열어준다.

책을 번역한 이준미씨는 “어떤 것도 미리 재단하지 않고, 그저 그가 하는 말을 따라갈 뿐 분석하지도 않으려 했다”며 “카프카의 글과 동행하면서 그의 내밀한 마음속 한 부분을 살짝 엿본 것 같아 좋았다”고 말한다. <하늘연못·1만6000원>



안도현의 발견

안도현 지음

일상을 향한 섬세한 시선

안도현 시인의 산문집 ‘안도현의 발견’에는 시 절필 선언 후 쓴 201편의 예시가 담겨 있다. 책에는 시간의 무게와 함께 쌓인 시인의 문학과 삶,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 사람, 맛, 숨, 생활이라는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기술돼 있다.

시인은 유독 작고, 나직하고,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특유의 섬세한 눈길로 바라본다. 만경각 돌길에서 만난 논병아리, 101전 101패의 기록을 가진 ‘똥말’ 차밍걸, 시인의 작업실 툄담 아래 피어 있는 꽃무릇 등 각각의 소재는 개성적이며 서정적 언어로 그려진다.

이처럼 시인의 눈이 닿는 것들은 있음과 없음, 기억과 망각 사이에 있는 것들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아름다움을 준다.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산기슭에 홀로, 혹은 두세 포기 피어 흔들리는 구절초의 가는 허리를 오래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내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한겨레출판·1만3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의 눈으로 본 조선의 사건·인물·문화

조선과 만나는 법

신병주 지음



“요즘에도 대학가의 과도한 신입생 환영회나 군대 신고식 문화의 폐단이 종종 언론에 오르내리곤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신고식 문화, 즉 신참례(新參禮)가 있었다. 조선 건국 초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어느 시기엔 신참례가 과해 사회문제가 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 이이는 특히 신참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이는 것을 부수고 웃을 찢으며 흉탕물에 구르게 하는 등 신참례의 폐단을 지적한 후, 신참례의 연원에 대해 ‘고려 말년에 과거가 공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밝힌 사람이 모두 귀한 집 자제로 입에 찾아 내는 것들이 많아, 그때 사람들이 분홍방(粉紅榜-나이 어린 권문자제가 과거에 급제한 일을 놀림조로 이르던 말)이라 지목하고 분격하여 침묵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여..”

영화 ‘군도’ ‘명량’ ‘해적’과 드라마 ‘야

세종, 5개월마다 국민투표 실시한 이유는 어우동 사건·여성 CEO 김만덕 등 45편

경꾼 일지’ ‘비밀의 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다음 아닌 시대적 배경이 ‘조선’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현재 ‘조선’은 상종가다. 다양한 매체와 출판물 그리고 문화 행사에서 조선을 다루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이라는 시대의 시간, 사람, 문물, 그리고 풍습 등이 꾸준히 소재화되고 있다. 아마도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펴낸 ‘조선과 만나는 법’은 조선사 500년을 넘나들며 크고 작은 45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책은 저자가 ‘고전의 향기’ 코너에 2년간 연재했던 글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서 꾸려냈다. 책에는 임진왜란, 명량대첩과 같은 굵직한 사건부터 세종, 영조, 정약용, 조광조 같은 인물들, 그리고 일상의 세세한 문화까지 조선사 전반이 들어 있다.

저자 신병주는 ‘역사저널 그날’,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등을 진행하며 역사 대중화에 앞장서왔던 학자다. 그가 들려주는 ‘조선과 만나는 법’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책이 담고 있는 45편 이야기는 그 자체로 조선의 역사다. 여기에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도 있

고, 낯선 조선의 모습도 들어 있다. 그러나 저자는 어떤 이야기든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려 했고 이를 통해 역사를 재해석한다.

가령 정치권의 성추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성추실록’에 기록된 어우동 사건을 화제로 삼는다. 또한 지금의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조실록’에 수록된 ‘여성 CEO’ 김만덕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저자는 어우동은 봉건 사회가 만들어진 희생자였다고 단언한다. 특히 융성한 문화를 꽃피웠던 성종이 어우동을 참형시킨 의도는 다분히 ‘반면교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성리학의 이념 전파와 맞물린 시점에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폐비 윤씨 사건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얘기다.

또한 김만덕은 기녀였으나 스스로 기녀라 생각지 않을 만큼 당찬 여성이었다. 재산을 늘리는데 뛰어난 재능을 살린 그녀는 정조19년에 큰 흉년이 들자 천금을 내놓은 통 큰 CEO였다고 평가한다.

책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풍속에 관한 부분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정약용이 5월에 한 번씩 개고기를 먹자고 주장하는 편지가 눈에 띈다. 그는 갠진 유

배지에서 형님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를 잡는 요령부터, 개고기 요리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하 알려준다. 5일마다 개고기를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세종이 5개월마다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유도 들려준다. 가령 ‘공법’이라는 새로운 세법 시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기간이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세종실록’에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기록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현암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세종(1397~1450)

영조(1694~1776)

김만덕(1739~1812)

나를 알리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고리 ‘패션’



거품과 냄비-한국 패션의 문화정체학

김종범 지음

“뭔가 보여지는 것” ‘튀는 것’ ‘서구적인 외모, 옷차림’. 일반적인 패션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은 그렇다. 혹자들은 패션은 서양 것을 한국에서 이야기하거나 조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국사회를 읽는 키워드로 ‘패션’을 선택한 책이 출간됐다. 김종범 대전대(글로벌

융합학부) 교수가 펴낸 ‘거품과 냄비-한국 패션의 문화정체학’은 한국 역사 속에서 패션이 지니는 의미와 영향력 등을 조명한다. 일단 저자는 각각의 주제를 단순한 인문학적 감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대중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 것이 패션이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흔히 노동자를 ‘블루칼라’, 사무직을 ‘화이트칼라’라는 계급적 의미로 규정하는 것은 패션을 문화적, 사회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한국인의 일상을 패션을 통해 들여다 보는 것은 우리들 내부에 내재된 한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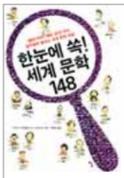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저자는 서양문물 도입과정에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나 새로운 현상이 패션과 어떻게 결부되었는지를 정치하게 들여다본다. 또한 저자는 시기에 따라, 주제에 따라, 또는 세대에 따라 패션이 어떤 양상과 모습으로 발현되었는지도 규명한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갖는 느낌의 미학으로 패션이 그저 화려하고 단순히 튀는 그 어떤 것이 아닌 나를 표현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있을 만큼의 주요한 연결 고리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떠올린다.”

<학민사·1만4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곡’부터 ‘해리포터’까지... 고전 148편 한 권에



한눈에 쏙! 세계 문학 148

카타리나 마렌홀츠 지음

“세르반테스는 왜 ‘돈키호테’를 썼을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 머릿속에서는 맴돌지만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운 문학 초보자들을 위한 책 ‘한눈에 쏙! 세계문학 148’이 출간됐다.

독일 출신 저자 카타리나 마렌홀츠는 단테의 ‘신곡’부터 조앤 롤링의 ‘해리

포터’까지, 700여 년 동안 발표된 세계 문학 중 고전으로 남은 작품 148편을 가려 뽑아 작품의 줄거리, 역사적 배경, 뒷얘기, 작가의 의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세익스피어가 위대해진 이유는 단어를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며, 제임스 조이스가 어려운 작품을 즐겨 쓴 이유는 단순히 평론가들에게 300년 동안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점 등 시대를 넘겨 고전을 남길 수 있었던 작가들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

문학 초보자이든 재미있는 이야기들, 문학 능력자이든 작품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흥미진진한 지적모험을 선사한다. <탐·1만5000원> /이보림기자 bora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